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천주교를 비롯한

기독교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에 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기독교 중에서도 먼저
구교라고 표현합니다만

더 오래된 기독교인 천주교에 관한
얘기들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영어로

Christianity(크리스챤너티)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Christianity라고 하는
'**Christ**'(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의
그 **Christ**(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고 번역되는 **Christ**
(크라이스트) 개념을

가장 핵심적인 중심 개념으로
삼고 있는 종교입니다.

Jesus Christ(지저스-크라이스트)의
Christ(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는데

'기름 부어졌다'라고 하는
희랍어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신에게 선택된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종교라고 얘기될 수 있겠습니다.

이 기독교 중에서도 오래된 기독교,
초창기 로마 기독교부터 시작된

이 기독교를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가톨릭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가톨릭이라고 하는
원래 단어의 뜻은 '보편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폭넓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저희가 저번 시간에
유대교를 다뤘습니다만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유대민족이라고 하는

부족 주의적 성격을 벗어나기 힘듭니다.

유대민족이 신의 선택된 민족으로서
독특한 역사적 소명 의식을 부여받고

그 소명 의식에 따라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건국이라고 하는

정치적 운동까지 이어졌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독교는 유대교의 밭에서,
텃밭에서 만들어졌지만

'인류 보편적인 사랑'이라는
덕목을 가지고서

그 범위를 훨씬 더 넓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톨릭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불교가 붓다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

인물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전개가 됐다고 하면

이 기독교는 예수라고 하는 인물의

생애와 가르침부터,
가르침에 기반을 둔 종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가 누구이고
어떤 가르침을 전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의 제자들,
사도들의 선교라든지

여러 가지 행동들이 이 '신약'이란
이름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구약'은 소위 모세 5경을 비롯해서

유대교의 종교 경전을
Old Testament(올드-테스타먼트),

'구약' 그러니까 '오래된 약속'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다음에 신약은 4복음서를 포함해서

새로운 약속,
New Testament(뉴-테스타먼트)

그래서 '새로운 약속'에서
'신약'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는 예수를
인간으로 바라본다는 말씀을 드렸다면

이 신약성경의 기독교는
예수를 신의 아들,

즉 구원자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는 저희가 알다시피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서

나사렛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세례를 받고 그 이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듣고서
그 가르침들을

그래서 이 유대민족들에게
소위 복음을 전파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수는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준다든지

또 오병이어라고 하죠.
5개의 떡과 2마리의 고기를 가지고서

수많은 신도를 먹이는
기적을 보여주는가 하면

그다음에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주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치경과 가르침들을
동시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소위 유대민족을 마치 모세처럼

모세가 출애굽, 이집트에서부터
유대민족을 탈출시켰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민족을 구원할

소위 정치적·종교적 지도자 즉
'메시아'라고 하는 예언된 사람이라고

보통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가 유대민족을

정치적으로 독립시켰냐고 하면
그렇지 못했죠.

예수의 가장 독실한 제자 중의 한 사람,
초기 제자 중의 한 사람인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유대민족이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나라를 다시 되찾고

독립하기를 바랐던 열혈 당원이었는데
이게 뜻밖에도

예수가 로마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끔찍한 죽임을 당하거든요.

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그리고 나서
이 이후에 유대민족 자체가

로마에 대한 항전, 반란을 일으켰다가
결국은 디아스포라란 이름으로

전 유럽에 흩어지게 되는
사건을 맞이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유대민족,
혹은 유대교 신자들,

유대교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닌 것이죠.

유대민족을 독립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신약에서는 신약 종교 전통
신약을 받아들이는 개신교

혹은 기독교 종교 전통에서는

예수는 인류를
단순히 유대민족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를 구원하게 될
구원자로서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예수의 가장 특징적인 가르침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불교 붓다는 무명에 대한 깨달음,
깨우침이라고 봤다고 하면

예수는 그 '유명한 원수도 사랑하라'는
얘기부터 시작하기까지

인간이 무엇을 행하든 간에
사랑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때 당시에 예수의 행적이
세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로마를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보내는 세리부터

몸을 파는 여자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사람들조차도

동등한 사람으로서
마치 조건 없는 무차별적인 사랑을

강조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독특한 종교성을 표출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종교 전통들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는데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아주 강력한 사랑

모든 경계와 장애를 녹여버리는
사랑에 대한 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의 삶 자체가
구원자로서 혹은 대속자로서

인류 보편적인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목숨

그러니까 타오르는 굉장한 큰 사랑에
의해서 목숨을 바쳤다고 하는

이 삶의 스토리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도

기독교는 예수의 사랑을 빼놓고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유명한 얘기로 예수한테는
열두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죽은 이후로
베드로를 포함해서 열두 제자가

근동을 포함해서 유럽 전역에
기독교를 아주 활발하게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열두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를 한 번도 직접 목격한 적은
없지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고린도전서를 포함해서
신약의 27권 중에서 13권을 저술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이 기독교를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보편적인 형태의 기독교로 발전시킨
사람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초기에는
로마로부터 탄압을 많이 받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로마는 별도의 국교가 없고

종교를 여러 개 다원적인 종교들을
다 인정했다고 하면

이 기독교의 유일신적인 종교 전통

그다음에 기독교의 유신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른 종교에 아무래도

배타적인 성향이 되게 강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유대민족 자체가 보여주는

이런 불굴의 독립정신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것도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초기에
이런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다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인정하게 되면서 나중에
국교가 되기 전까지

탄압받던 상황이 변모하고
점차 로마 전역으로,

로마 전역이란 얘기가 유럽을 포함해서
아프리카에 이르는 광범한 지역으로

기독교가 퍼져나가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국교로 인정이 되고
공인되는 과정을 통해서

가톨릭이 점점 힘을 얻어가지만

이게 또 나중에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 교회와 동로마라고 하는
동남아 제국의 동방정교회라고 하는

큰 두 가지 흐름으로

개신교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이 두 개로 1054년에
나뉘었다고 하는 것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하튼 유대교는 구약을
주된 경전으로 삼고 있고

기독교는 구약과 신약을 동시에 다

자신의 경전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하면서요.

특히 신약성서는
그리스어로 적혀있습니다.

구약은 유대인들의 언어인
히브리 언어로 기록됐다고 하면

신약성서 전체는 그리스어로,
희랍어로 기록됐다고 하는 것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독교의 경전은
소위 선지자들에 의해서,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선지자들에 의해서

말씀들을 저쪽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신으로부터 전해 받아서 적혔다고
하는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약성서에는 크게 보면

우리가 그 유명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4복음'

즉 복음이라고 하는 게
복된 소식이라는 얘기니까

하나님의 좋은 소식들을
전해주는 얘기들 하고

그다음에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열두 사제들의 선교라든지
행적들을 기록한 것

그다음에 '서신'이라고 해서
당시 초창기의 교회 지도자들이

서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편지를 주고받은 글들,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처럼 '계시'
앞으로 미래의 시대에

어떻게 천년왕국 혹은 미래 사회가
다가올 것인가에 관한

계시록으로 크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기독교는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에 일찍이 소개가 됩니다.

특히 조선 시대에,

청나라에 사신으로 가죠.
그러니까 연행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연행을 다니는 과정에서 소위
그때 청나라에 전파돼있는 가톨릭이죠.

그 가톨릭을, 기독교를 접하고

이것을 '서학'이란 이름으로
배워오게 됩니다.

이 서학이 나중에 유학자들,
정약용과 같은 사람을 포함한

유학자들 중심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소위 이게 천주교란 이름으로
기독교가 전파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프랑스 신부들을 포함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요청하게 되죠, 한국으로.

당시 조선으로 파송을 해주기를요.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마치 불교가 초창기 신라 시대에

이차돈의 순교를 통해서
불교의 정착이 이루어졌듯이

서학이라고 하는 서구 기독교가 소위

대표적으로 '황서영 백서사건'이라고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제사 문제를 놓고서
아주 심각한 갈등과 탄압을

받게 됐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지금에 와서는
가톨릭이 전파된 특히 외래 종교인

가톨릭을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자발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기독교 선교사에 한국은

대단히 독특한 경우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 가톨릭은
성당이라고 하는 곳의 신부님, 수녀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로마 교황청이라고 하는

대단히 조직적인 시스템 속에서
단일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아주 엄밀한
교계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만

여러 가지 세례를 포함한 의례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동시에 성당에 가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성모 마리아를 포함해서
예수 행적을 모자이크와 같은

예술 작품으로 아주
다채롭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나중에 개신교 교회라든지
개신교의 의례와 비교해 보면

천주교는 의례라는 측면에서
예전의 전통적인 종교의 양식들을

많이 유지하고 있는 종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 동안에 쪽 기독교,
기독교 중에서 오래된 교파인

천주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독교는 크게 구교와 신교로 나뉘지고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예수의 가르침들에 바탕을 뒀서
유대교로부터 출발했지만,

유대교의 부족적 성격을
더욱더 크게 확장시킨 방식으로

보편성을 획득한 종교이다.

그리고 이 기독교는 서구 문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기억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독교 중에서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등장하게 된

신교, 혹은 개신교라고도 표현하는
이 프로테스탄티즘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